

## 하나님은 6천 년간 우리를 위해서 6면에 이어 희생제물이 되신 것이다

Greed springs forth like a fountain from the subject consciousness of 'I.' Therefore, it is not only the spring water that is being greedy, but also the wellspring that is being greedy. The source of the spring is the wellspring. Therefore, the saying that we should always abandon 'I' is recorded not only in the Bible but also in Buddhist scriptures. Confucianism also says to abandon 'I.' However, no one in this world knew this fact. '나라는 주체 의식의 샘에서 욕심이 샘솟듯 솟아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가 샘물만 욕심이 아니고 샘구멍도 욕심이다. 샘의 근원이 샘구멍이다. 그런 고로 나라는 것을 항상 버리라는 말은 성경 뿐만 아니라 불경에도 씌어 있는 것이다. 유교에서도 나를 버리라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 중 그 어느 누구도 이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Therefore, the subject consciousness called 'I' is sin, the devil, the fruit of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and the element of death, and if only this element of death is removed, man becomes a god who does not die. That is why God told man to abandon me in order to make him God. This man, who realized this early on, worked hard throughout my life to abandon me. In order to abandon me, I had to live the opposite way I claimed, not the way I claimed. So this man lived the opposite way. Living the opposite way is more difficult than picking stars from the sky. If this man had lived the way I claimed, I would not have had to shed tears. However, because I lived the opposite way I wanted, it was so hard that I could not bear it and it did not go well, so I lived in pain, shedding tears like beads. When I did not want to work, I did hard labor, and when I was tired from work and wanted to rest, I worked harder and worked until I collapsed. Sometimes I even lost consciousness and collapsed. 그러므로 '나라는 주체 의식이 죄요, 마귀요, 선

악과요, 사망의 요소인데 이 사망의 요소만 제거하면 사람은 죽지 않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 만드시려고 나를 버리라고 했던 것이다. 일찍이 그것을 깨달았던고로 이 사람은 나를 버리려고 평생 동안 무던히 노력을 했던 것이다. 나를 버리려면, 내가 주장하는 대로 살지 않고 반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반대로 살았던 것이다. 반대로 산다는 것은 하늘에 있는 별을 따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이 사람이 내 주장대로 살았다면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원하는 것의 반대로 살려니까 너무나무 견딜 수가 없이 힘이 들고 잘 되어지지 않는 고로, 고통스러워서 구슬같은 눈물을 흘리며 지냈던 것이다. 일하기 싫으면 중노동을 하였고, 일하다 힘이 들어 쉬고 싶으면 더 힘들게 나를 짓기며 쓰러질 정도로 일을 했던 것이다. 어떤 때는 정신을 잃고 쓰러질 때도 있었다.

### I have to live the opposite of what I want so that the spirit of God can be strong. 내가 원하는 것과 반대 생활을 해야 하나님의 영이 강해져

"The winner" didn't just become the "winner". This man lived in opposition for almost my entire life. If I wanted to eat delicious food, I had to eat only kimchi and radish kimchi. When someone asked me why you didn't eat meat, I said, "I can't eat meat." So in my heart, I thought, "Why can't you? Who can eat meat as well as you?" and I became greedy for myself. 「이긴자」가 그냥 「이긴자」가 된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은 거의 한 평생을 반대 생활을 하였던 것이다. 맛있는 음식이 먹고 싶으면 감치와 깎두기만 먹어야 했다. 왜 고기를 안 드시냐고 물으면 '난 고기를 못먹습니다'라고 하니 내 마음속에서 '왜 못 먹어. 너처럼 고기를 잘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라고 나를 위하는 욕심이 일어났던 것이다.

Every time, I would scold me, saying, "Stop nagging me. You devil. You

shouldn't eat it." When delicious meat is served on the table after hard labor and a hungry stomach, the smell of the meat tickles the nose, the saliva drips down, and the spoon quickly reaches for the meat bowl. This is a human instinct, but this man didn't eat meat. When many people sit around the table and eat food, the delicious food is the first to run out. But this man didn't eat that delicious food. While other people's chopsticks only go to the delicious food, this man only eats bitter perilla leaves, and the devil inside me shed tears. As I lived this kind of life of opposition, the devil inside me gradually became weaker. As I continued to live a sacrificial life, I gradually became weaker, and my conscience, which is the spirit of God, gradually became stronger. Over the long years, the spirit of God became stronger, and the spirit of God took over the position of "me." 그때마다 '잔소리'마라. 이 마귀새끼야. 넌 먹으면 안돼'라고 나를 짓이겼던 것이다. 중노동을 하고 허기진 배에 먹음직한 고기가 밥상에 오르면, 구수한 고기 냄새가 코를 찌르고 침이 꿀꺽 넘어가면서 수저가 고기 그릇으로 재빨리 가는 것이 사람의 본능적인 작용인데, 이 사람은 고기를 안 먹었던 것이다. 어젯이 둘러앉아 같은 식탁에서 음식을 먹으면 맛있는 음식이 제일 먼저 바닥이 난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맛있는 음식을 먹지를 않았던 것이다. 다른 사람은 맛있는 음식에만 계속 젓가락이 가는데, 이 사람은 쓰디쓴 씹바귀만 먹으니 내 속이 마귀새끼가 눈물이 났던 것이다. 이렇게 반대 생활을 평생동안 하니가 내 속의 마귀가 점점 약해졌던 것이다. 희생적인 생활을 항상 계속해서 하니가 나라는 것이 점점 약해지면서 하나님의 영(靈)인 양심(良心)이 점점 강해졌던 것이다. 긴긴 세월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점점 강하여져서 하나님의 영이 '나라는 위치를 점령해버린 것이다.

This is not the history of man. The

more you listen, the more you will be able to feel that it is indeed the word of God. The substance of truth came out of Yeokgok(驛谷) in Bucheon City, Republic of Korea. When you listen to this word, the scope of action you should take will be set. 이것은 사람의 역사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들으면 들을수록 과연 하나님의 신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진리의 본체가 한국땅 역곡에서 나왔다.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노력해야 되겠다는 행동반경이 설정될 것이다.

If you do not move according to my demands, but always move in the opposite direction, if you move sacrificially and consider your brother's pitiful situation as your own, and your brother's pain as your own pain, then there will be no one in this world you hate. When there is no one you hate or dislike, then you have almost become a righteous person. 내 요구대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항상 반대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희생적으로 움직이면서 형제의 사정을 내 사정으로, 형제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면, 미운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게 되는 것이다. 미운 사람, 못마땅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 그는 의인이 거의 다 된 것이다.

Today, I am telling you here, 'Do not commit sins in your heart, treat your brothers as your own body, consider your brother's sins as your own sins, consider your brother's mistakes as your own mistakes.' These are words of a high level that even Jesus, Buddha, Confucius, Mencius, and many other great saints could not discuss. These words are coming out of this Yeokgok(驛谷). These words discuss the highest good. 오늘날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으로 죄를 짓지 마라, 형제를 내 몸처럼 여겨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형제의 잘못을 내 잘못으로 여기라' 하는 말을 하는데 이 말은 예수나

석가, 공자나 맹자 그 외의 가리성 같은 많은 성인들도 논하지 못한 고차원의 말씀인 것이다. 그 말씀이 이곳 역곡에서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은 최고의 선(善)을 논하는 것이다.

God regards the wicked actions and wicked hearts of sinners as His sins, and He regards them as His faults and sins in His holy body. We must emulate His humility. 하나님은 죄인의 악한 행동, 악한 마음을 당신의 죄로 여기시고, 당신의 그 거룩한 당신의 몸으로서 당신의 잘못으로 여기고 당신의 죄로 여기신다. 그 겸손함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이다.

If we consider our brother's sin as our own, it is nothing, since as a sinner we consider the sin of the sinner as our own. Even God, who is without blemish and spot, considers the sin of the sinner as His own, so it is natural for a sinner to consider the sin of the sinner as his own. 우리가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긴다는 것은, 죄인으로서 죄인의 죄를 내 죄로 여기는 것이므로 아무것도 아니다. 흠과 티가 없는 하나님도 죄인의 죄를 내 죄로 여기는데, 죄인이 죄인의 죄를 내 죄로 여긴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 It is only natural to consider the sins of my brother as my own. 형제 죄를 내 죄로 여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

We come to Victory-altar to return to our essence, which is God's purpose and God's origin. To return to our essence, we must become a sacrificial offering for God. God has been a sacrificial offering for us for 6,000 years. Now that we realize it, we too must become a sacrificial offering, even if it is only one ten-thousandth. That is how we are grafted into God's essence. That is how we become God. There is eternal life if we become God. Even if we die and wake up, there is no other way.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근원이

되는 우리의 본체로 돌아가기 위해서 승리제단에 오는 것이다. 우리의 본체로 되돌아가려면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6천 년간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신 것이다. 이제 깨달았으면 우리도 희생제물이 되는 일, 만분의 일이라도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의 본체에 접붙임이 되는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되어야 영생이다. 죽었다 깨어나도 다른 방법이 없다.

Since we were originally God, we must have the pride to become God. With pride, we must always abandon greed and live a life that rejects greed. 우리도 원래 하나님이었던고로 하나님이 되기 위한 금지를 가져야 될 것이다. 금지를 가지고 항상 욕심을 버리고, 욕심을 배척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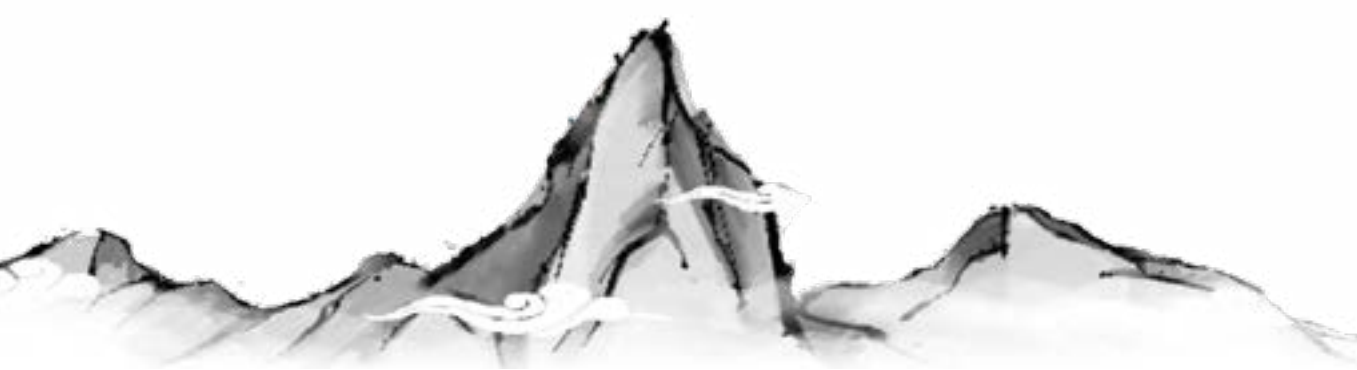
This man silently kept the law of freedom and became a sacrificial offering in the midst of all kinds of contempt and humiliation throughout my life. The footsteps of the "Overcomer" are exactly like the process of a worm turning into a cicada. While undergoing constant refinement, this man was beaten for no reason, locked in a room, and sometimes even accused of being a thief, but this man never once made excuses. While undergoing unspeakable refinement, this man was reborn, resurrected, and in the midst of that, this man became God. 이 사람이 한평생 온갖 천대 멸시 속에서 묵묵히 자유율법을 지키고 희생제물이 되었다. 「이긴자」가 걸어온 발자취는 완전히 굴뚝이가 매미가 되는 과정과 같다. 꾸준한 연단(鍊鐵)을 받는 가운데서 이유없이 매를 맞고 방에 갇히고, 어떤 때는 도둑 누명을 씌워도 한 번도 이유 변명을 해본 적이 없었다. 말할 수 없는 연단에 연단을 받는 가운데서 중생(重生=거듭남)이 되고, 부활(復活)함을 입게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된 것이다.\*

## 석가지운 삼천년이 끝나고 미륵불이 출현했건만 유불선이 부패하여 알지를 못하는구나

### 歌儼總論(五) 가사총론

十勝云도 십승운알 앞으되  
人衆則時物盛 인중즉시물성이요  
物勝則時地闊 물승즉시지역이요  
地闊則時苦盡甘來 지역즉시고진갈래  
地運退去天運來 지운퇴가천운래로  
天下靈氣皆入勝 천하령기皆입승을  
南海島中八靈山 남해도중팔령산이  
海島之中 海도지중 아니로세  
萬頃滄波大海邊 만경파다해변에  
小產魚鹽富饒 소산어염부요하나  
他國兵船往來 타국병선안래하니  
弓不在水分明 궁부재수분명하다  
不利山水非野處 불리산수비야처를  
仁富平沙桃源地 인부평사도원지로  
東半島中牛服洞 동반도중우복동이  
靑鯨神靈出入 청학신령출입하니  
人王四維智異山 인왕사유지라산이  
十勝십승으로 暗示암사일세  
十勝之地出現 십승지지출현하면  
死未生初當運 사망생초당운이라

십승을 말하여 이르되 사람이 많은즉 때는 물질이 풍성함이요. 물질이 뛰어난 즉 때는 땅이 새롭게 열림이요. 땅이 새롭게 열린즉 때는 고생이 다하고 즐거움이 오는 법이라. 지운(地運)이 물러가고 천운(天運)이 돌아오면 천하의 신령한 기운이 다 십승에게 모여들리라. 지운(地運)은 지



귀(地鬼)의 운인즉 쇠병사장(衰病死殤)을 면할 수 없는 운이며 천운(天運)은 천신(天神)의 운인즉 쇠병사장이 물러가는 운이다.

남해도(해우반도의 남쪽=남조선) 중의 십승 정도령이 있다는 팔령산(八靈山)은 바다 가운데의 섬이 아니니라. 푸른 파도 일렁이는 큰 해변에는 물고기와 소금의 생산은 작지만 풍요하게 사는데 다른 나라의 군함이 왕래하니 십승이 물(바다)에 있지 아니함이 분명하니라. 산도 물도 이로움이 없으니 비산비야(非山非野) 즉 산도 들도 아닌 곳을 찾아보라. 인천 부평 소사 사이에 무릉도원을 상징하는 복숭아밭이 있던 곳이요. 동쪽 반도의 조선의 우복동(牛服洞=牛자의 배=十)에 청학신령(靑학선)이 출입하니 인왕(人王=人尊)으로 기이(奇異)한 지혜를 가지신 십승을 암시함 일세. 십승지 정도령이 드러나면 죽음의

세상은 끝나고 영생의 세상이 처음 열리는 운이 당도하느니라.

入山修道念佛 입산수도염불님네  
彌勒世尊苦待 미륵세존고대치만  
釋迦之運去不來 석가지운거불래로  
한번가고아니오니  
三千之運釋迦預言 삼천지운석가예언  
當末下生彌勒佛 당말하생미륵불을  
萬靈山中仙人 만첩산중산인들아  
山中滋味閑寂 산중자미한적하나  
魑魅魍魎虎狼盜賊 리매망량호랑도적  
是亦弓不在山 시역궁부재산일세  
斗牛在野勝地處 두우재아승지처엔  
彌勒佛미륵불이出現출현건만  
儒佛仙유불선이 儻敗부패하야  
아는君子군자 누구누구  
削髮爲僧侍主 삭발위승사주님네  
世音菩薩 세음보살 게누군고

侍主菩薩不覺 시주보살불각하고  
彌勒佛미륵불을제알손가

입산수도 염불하는 스님네들이여! 석가의 운수는 한 번 가고 아니 오나니 미불을 고대하라. 삼천년의 운수를 맡은 석가가 예언하기를 말법시대(말세)에 미륵불이 이 세상에 내려올 것을 말하였느니라. 첩첩산중의 선인(仙人)들이! 산중(山中)에 한적(閑寂)한 재미는 있으나 산도깨비, 하깨비, 호랑이, 이리, 도적같은 자들이 날뛰니 이 또한 십승이 산에 있지 않음일세.

생명을 주관하는 복두절성의 기운을 가지고 소가 들에서 밭을 가듯이 마음 밭을 갈고 인생을 추수하기 위해 마귀를 이기신 미륵불이 출현하건만 유불선이 부패하여 아는 군자 누구인가? 머리 깎고 중이 되어 시주한다는 스님네들이여! 관세음보살이 그 누구인가? 우주의 주인공을 마

음속에 도신 관세음보살을 깨닫지 못하고 서 어찌 미륵불을 알겠는가?

阿彌陀佛佛道人 아미타불불도인들  
八萬經卷工夫 팔만경권공부하야  
極樂극락간디말은하나  
가난길이希微희미하고  
西學入道天堂人 서학입도천당인들  
天堂天堂말은참조으나  
九萬長天구만장천 멀고머니  
一平生일평생안다못가고  
歌時調儒士 영가시조유사들은  
五倫三綱正人道 오륜삼강정인도나  
假謔放恣猜忌嫉妬 거만방자시기질투  
陰邪附毒欲 음사정옥사일나라

아미타불을 염송하는 불도인(佛道人)들은 팔만대장경을 공부하면서 극락 간다고 말들은 하지만 가는 길이 희미하고 서학(西學)에 입도(入道)한 천당인(天堂人)들 즉 기독교를 믿고 천당 간다고 하는 사람들 천당(天堂) 말은 참 좋으나 구만장천(九萬長天) 멀고 머니 일평생엔 다 못가고, 노래를 부르며 시조를 읊는 유교의 선비들은 삼강오륜(三綱五倫)이 바른 인륜(人倫)이요 도덕(道德)이지만 거만방자(假慢放恣)하며 시기질투(猜忌嫉妬)하고 음탕하고 샛된 짓을 하며 정욕에 빠져있을 뿐 이더라.\*

박명하/ 고서연구가 010-3912-5953  
myunghpark23@naver.com

##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승우

승리신문은 독자들의 정성어린 성금으로 만들어집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 승리신문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윤봉수	편집인 박태선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됨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14679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